

추모극·영화·씻김굿·음악회... 잊지 않을게요

광주·전남·전북서 세월호 5주기 문화행사

16~17일 5·18민주광장 등서 춤극 '하늘꽃'
광주독립영화관 15~17일 '생일' 등 3편 상영
12일 목포신항서 추모 음악회 열려
전통문화관 한달간 매주 일요일 추모 굿판

꽃이 피고 지기를 다섯 해 거듭해 또 다시 4월이다.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전시·공연 등 문화행사로 그 날을 기억한다.

세월호 5주기 추모극 '하늘꽃'은 16일 오후 7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이어 이튿날 오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춤극의 형태로 세월호를 다시금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작품의 연출과 안무는 예술단 '춤추는 나무' 강혜림씨가 맡았다. 박기태(작곡), 박정운(무대연출), 김정훈(기획)씨가 참여하고 김호준, 홍지연, 백민, 김은숙, 이만야, 강숙향씨 등이 출연한다.

춤극 '하늘꽃'은 16일 세월호광주시민상추모임과 4·16재단이 개최하는 세월호 5주기 추모 문화제 '세월 5년 우리의 오(5)날'의 하나로 열린다. 이날 오후 추모제 일대를 걷는 '진실의 순례길'과 '예술인행동장'이 열리고 오후 7시 30분부터 본 문화제가 시작된다. 문의 010-6406-7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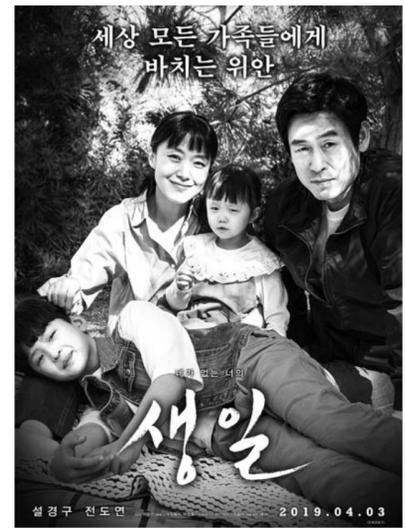
전통문화관(동구 운림동)은 4월 한 달 간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여는 일요일상영관에 황해도, 제주도, 동해안 등 국가무형문화재 3곳 보존회를 초청해 추모 굿판을 벌인다. 7일 황해도 철물이굿을 시작으로 오는 14일에는 '진도 씻김굿' 21일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8일 '동해안 별신굿'을 무대에 올린다.

개관 1주년을 맞은 광주독립영화관(동구 서석동)은 영화 3편을 상영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오는 15~17일 열리는 '세월호 5주기 특별전'에서는 영화 '생일', '봄이 가도', '눈꺼풀'을 상영한다.

최근 개봉한 '생일' (전체 관람가)은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 수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정일(설경구)과 순남(전도연)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세월호를 극화한 최초의 상업영화로 기록된 이 영화는 국내 대표 연기파 배우 설경구와 전도연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이종연 감독은 지난 2015년 안산의 치유공간 '이웃'에서 봉사를 하며 세월호 유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추모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16~17일 열리는 춤극 '하늘꽃'.



영화 '생일'

단편 세 편이 엮인 유니버시아 영화 '봄이 가도' (2018·12세 관람가)는 장준업, 진정하, 전신환 세 신예 감독이 연출했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된 이 작품은 슬픔

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기획전을 마무리하는 작품은 오명 감독의 '눈꺼풀' (2016·15세 관람가)이다. '4월의 바다에 전하는 진혼곡'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이 영화는 '2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CGV아트하우스상을 수상했다.

'생일' (관람료 6000원)과 나머지 영화는 무료 상영한다. 문의 062-222-1895. 영화 '생일'은 10일 화상시네마 (10일 오후 5시 30분, 7시 50분), 나주문화예술회관 (16일 오후 7시)에서 무료 상영회를 갖는다.

오는 12일 오후 4시 세월호가 자리한 목포신항에서는 추모 음악회가 열린다. 전남문화예술협회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남도 20개 사·군이 연합한 전남도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신안 1004 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한다.

또 14일 오후 1시 전주한옥마을 동학기념관 앞에서는 기약함주 '육자배기', '살풀이' 춤, '진도씻김굿' 등 추모 공연이 전 출연진의 재능기부로 열린다.

오는 14일까지 목포신항에서 전시회 '기억과 약속', 17일까지 목포오거리문화센터에서 '기억과 약속' 전시가 열린다. 정읍사예술회관은 오는 12~16일 전시 '4·16 다섯 번의 봄'을 마련했다.

오는 13일 오후 2시 5·18민주광장에서는 세월호 5주기를 추모하는 '광주청소년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주와 인간의 문화적 삶 한 편의 서사시”

이춘배 시인 두 번째 에세이집 '별의 별 생각' 펴내

“생각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 있다면 세상은 바뀌어도 한참 바뀔 것이다. 체중을 재면 그 옆에 나타나는 다른 수치- 체중 70kg에 사람 몸무게는 90kg- 생각이 곧 그 사람이리니 체중관리처럼 자기의 인간성을 체크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되면 자기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이기(利己)에 추월당하는 공리(公利)를, 탐욕에 짓밟히는 양심을, 물질에 압도되는 정신의 가치를 옹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람마다 좋은 생각, 웅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 세상은 예뻐들어서 되돌아가지 않을까?”

다형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인 이춘배 시인이 두 번째 에세이집 '별의 별 생각' (함림)을 펴냈다. 지난 2009년에 펴낸 첫 번째 수필집 '침묵연습'에 이어 10년 만에 펴낸 책에서 시인은 우주와 생명, 인간을 사유한다. 일반적인 수필집이 개인의 일상과 신변잡기를 주제로 하는 반면, 이 시인의 수필은 광범위한 사유에 닿아 있다.

저자는 우주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자신은 물론 모든 생명체와 대지까지도 별들의 직계 후손으로 상정한다.



이로 인해 모든 존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존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천문학적 광년에 걸친 순환 별들의 물상(物像)에다 무한한 시공간마저 아우른 우주와 인간의 문화적 삶을 한 편의 서사시로 압축해냈다”는 논평과 연계되는 지점이다.

저자의 철학은 인류가 지금까지 개척해온 문화사에서 최상의 선이라 여겼던 인본주의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자연에서 따로 떼어내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탐욕으로 귀결돼 자연의 파괴, 생명의 파괴 등의 위기를 낳았다고 본다.

한편 함평 출신의 이 시인은 '문학춘추'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문화상과 광주예술문화상(문학)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시집 '길 찾아가는 길', '하얀강 푸른 별'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디어아트 창의 랩 2기 프로젝트팀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창의 랩 2기 프로젝트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플랫폼(홀로그램작, 미디어놀이터 등 미디어아트 특화 6개 공간)에서 선보일 콘텐츠 등을 연구·개발하고 미디어아트 창의 랩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로젝트팀 선정조건은 미디어아트 관련 유경험자로 프로젝트팀 총괄 운영할 PM(팀 대표)이 창·제작자를 사전 구성(분야가 다른 2명 이상으로 구성)

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총 2개팀이다.

새로운 형태의 홀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랩 1개팀과 LED, 영상 등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콘텐츠 랩 1개팀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신청서, 활동계획서 등)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kangmokey@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주스컴퍼니 '신신사유람단' 베트남 여행 참가자 모집

문화기획사 주스컴퍼니가 오는 18~21일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베트남 여행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신사유람단 2기' 베트남 문화 비즈니스 여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문화콘텐츠분야 창업자, 창업예정자, 기업종사자, 유관기관 종사자 등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만 19세에서 45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베트남 하노이, 하이퐁, 하롱베이, 베트남 한국문화원, 한메디자인센터 등을 방문해 명사특강, 기관미팅, 비즈니스 네트워킹, 멘토링 등 현지 연계 창업

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포스트차이나베트남'을 펴낸 박낙중 전 베트남 한국문화원장 등 다양한 명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신사유람단'은 양림살롱여행자라운지와 베트남 현지 파트너 기업인 AC&M CONTENTS가 주관·참여한다. 1기 여행에 참여했던 콘텐츠 제작사 '바닐라씨'는 한·베 합작 웹드라마 '어바웃유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참가비 69만원(항공료 별도). 문의 070-4239-504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영수문학상에 이승우 조선대 교수 선정

수상작 '강강'...상금 3000만원

제27회 오영수문학상 올해 수상자로 이승우(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작가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중편 소설 '강강'이며 상금은 3000만원.

오영수문학상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작가의 '강강'을 수상작품으로 선정했다.

울산매일신문사와 S-OIL이 공동주최하고 울산시가 후

원하는 오영수문학상은 단편소설 거목(巨木) 난계 오영수 작가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작 소설 '강강'은 대서양의 작은 항구도시 강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과거와 단절된 채 낯선 세계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다. 심사위원들은 "사물과 현상을 표면적으로만 읽지 않고 그것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가진 작가만이 거둘 수 있는 성취를 작품을 통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승우 작가는 지난 5일 열린 시상식에서 "작품에서의



지와 상관없이 달갑지 않은 운명을 받아든 사람 앞에 얼마 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놓인 사람들의 사연들을 통해 복기(復讐)해 보려 했다"며 "오영수 선생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상을 새로운 출발을 독려하는 신호의 총성으로 받아들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흥 출신 이 작가는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동인문학상, 동리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가시나무 그늘' '식물들의 사생활' '사랑의 전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